

2027학년도 화작 미니모 1차 모의고사

국어영역 해설

문항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1	③	11	③		
2	⑤				
3	②				
4	③				
5	④				
6	②				
7	④				
8	⑤				
9	②				
10	④				

1

발표 전체에서 발표자가 '자신이 직접 체험한 사례'를 제시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발표자는 CES 2026의 젠슨 황 CEO 발언(②의 근거), 서비스 로봇 보급 통계(④의 근거), 모베드 사례(④의 근거), 서울AI페스티벌 방문자 수 등 '외부 자료와 사례'를 활용하였지, 발표자 본인의 체험을 이야기한 적은 없다.

오답 분석:

- ①: [정답 아님] ¶1에서 "서빙 로봇을 만나 본 적 있으세요?"라고 청중 경험을 묻고, "많이들 경험하셨군요"라고 반응을 확인하며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므로 적절.
- ②: [정답 아님] ¶2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AI의 다음 단계는 로봇 공학" 발언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적절.
- ④: [정답 아님] <자료 1>(표)과 <자료 2>(모베드 개요)를 순서대로 제시하며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적절.
- ⑤: [정답 아님] ¶5 마지막에서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라고 당부하고 있으므로 적절.

2

발표자는 <자료 1>로 서비스 로봇 보급의 전반적 증가 추세를 제시한 후, <자료 2>로 그 흐름 속의 구체적 사례(모베드)를 보여 주었다. ¶4에서 "하나의 로봇 몸체에 용도에 따라 다양한 모듈을 결합할 수 있다"며 범용 플랫폼형 로봇으로서의 특성을 설명하고, 결론 부분에서 "범용 플랫폼이 다양한 현실 환경에 적용하는 방향"이라고 정리하였다. 이는 전체 흐름(자료 1) + 구체 사례(자료 2)의 활용에 해당한다.

오답 분석:

- ①: 표에서 증가율은 41%→20%→14%로 '동일한 비율'이 아님. 발표자도 "증가율은 다소 둔화"라고 언급.
- ②: 2023년 증가율이 높은 원인을 '피지컬 AI 기술 도입'과 연결 짓는 설명은 발표에 없음.
- ③: 기존 서빙 로봇과의 속도·적재량 비교는 발표에서 이루어지지 않음. 모베드의 사양을 소개했을 뿐.
- ④: 편심 메커니즘의 원리적 차이를 다른 로봇과 비교 분석하는 내용은 없음.

3

'학생 2'는 증가율 둔화에 주목하여 "시장이 포화되고 있는 건지, 기술 성숙기에

접어든 건지" 궁금해하고, "증가율 둔화의 원인"을 알면 전체 흐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피지컬 AI 기술의 한계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자료에 제시된 수치의 추이에 대한 추가적 해석 및 원인 탐구의 욕구이다. '한계에 대한 우려'는 기술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지만, 학생 2는 보급 증가율 둔화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싶다는 것이므로 성격이 다르다.

오답 분석:

- ①: [정답 아님] '학생 1'은 "기존 AI는 데이터 분석에 머물렀다", "피지컬 AI는 물리적 행동까지 수행한다"며 발표 내용을 자신의 말로 재정리하고 있으므로 적절.
- ③: [정답 아님] '학생 2'는 "증가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라며 표의 수치를 추가적으로 해석하고, "포화"인지 "성숙기"인지 궁금해하므로 적절.
- ④: [정답 아님] '학생 3'은 "하나의 로봇이 여러 역할을 한다"는 모베드의 특성을 근거로 "개별 전용 로봇보다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추론하고 있으므로 적절.
- ⑤: [정답 아님] '학생 1'은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학생 3'은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며 각자의 관심사(학교 적용/경제성)와 연결 짓고 있으므로 적절.

4

사회자는 토의에서 배경-주제 제시(①), 용어 확인("안전 환경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②), 의견 정리 + 이후 과제("건의문을 작성하겠습니다")(④, ⑤)를 수행했으나, 토의자들 간의 의견 대립을 조정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한 적은 없다. 학생 1과 학생 3의 대화에서 교과 목표 달성 우려가 나왔으나, 이를 학생 3 본인이 "보완하는 관계"라고 답했을 뿐 사회자가 개입하지 않았다.

오답 분석:

- ①: [정답 아님] ¶1에서 AI 중점학교 선정 배경과 토의 주제를 제시. 적절.
- ②: [정답 아님] 학생 1의 '안전 환경'이라는 용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라고 확인. 적절.
- ④: [정답 아님] ¶3에서 네 가지 의견을 정리하고 "건의문을 작성하겠습니다"라고 이후 과제 안내. 적절.
- ⑤: [정답 아님] "건의문을 작성하겠습니다"에서 토의 결과를 건의문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힘. 적절.

5

'학생 4'의 디지털 사용 일시 제한은 '학생 1'의 안전 환경 구축 방안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학생 4는 "학생의 자기 점검 기회도 필요하다"라며, 안전 환경이나 리터러시 교육과는 별개의 새로운 관점(AI 의존도 자각)에서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학생 2가 "좋은 방법"이라고 호응한 것도 학생 4의 의견이 독립적 제안임을 보여 준다.

오답 분석:

- ①: [정답 아님] 학생 1은 "학생들 사이에서 AI가 제시한 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며 경향을 근거로 안전 환경을 주장. 적절.
- ②: [정답 아님] 학생 2는 "모니터링 환경 구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근본 원인 지적. 적절.
- ③: [정답 아님]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별도 시간을 새로 편성하기보다"라며 실행 방법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 적절.
- ⑤: [정답 아님] 학생 1은 "해당 교과의 본래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라며 학생 3의 대안에 대한 우려 표명. 적절.

6

(가)에서 학생 2는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AI가

만들어 낸 정보를 검증하는 방법, 저작권과 윤리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 (나)의 (ㄴ)에서 "AI 리터러시 교육의 교과 연계"로 정리되었다. → (다)의 둘째 건의에서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고, 저작권 및 윤리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길러져야 합니다"로 구체화되었다. 3단계 흐름이 정확히 대응한다.

오답 분석:

- ①: 학생 3의 기존 교과 시간 활용 제안은 (나)의 (ㄴ)에 반영되어 (다)의 둘째 건의에서 구체화되었지, 셋째 건의가 아님. 셋째 건의는 디지털 사용 일지에 관한 것.
- ③: 학생 4의 과의존 통계는 (가)에서만 언급되었고, (다)의 셋째 건의에서는 과의존 통계를 직접 인용하지 않음. 건의문에서는 "AI 의존 습관을 스스로 자각"이라고만 표현.
- ④: (다)의 첫째 건의에서 차단 기능을 언급하긴 했으나, 기술적 원리를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음. "부적절한 표현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이라고만 서술.
- ⑤: 시수 부담 최소화와 교육부 시수 기준 충족은 (다)의 둘째 건의에 반영되었지, 첫째 건의가 아님.

7

(다) ¶1에서 "AI가 생성한 정보를 검증 없이 받아들이거나 AI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라는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 이후 ¶2(안전 환경)에서는 해결 방안(플랫폼 도입) + 기대 효과("안전하면서도 교육적인 AI 활용 환경"), ¶3(교과 연계)에서는 해결 방안(기존 교과 연계) + 기대 효과("시수 부담 없이 기준 충족"), ¶4(자기 점검)에서는 해결 방안(디지털 사용 일지) + 기대 효과("AI 의존 습관 자각")를 서술하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구체적 통계 수치를 반복 인용하는 부분은 없음. (가)에서 학생 4가 통계를 언급했으나 건의문에는 반영되지 않음.
- ②: 건의 사항은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나, 건의 사항 '간'의 인과 관계를 명시적으로 서술하지는 않음.
- ③: 다른 학교의 성공 사례는 건의문에 제시되지 않음.
- ⑤: 마무리에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으나, 구체적 시행 일정을 요청하지는 않음.

8

학생회장의 요구(일지 작성이 의존도 자각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 보완) + 학생 부회장의 요구(과의존 통계 활용)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⑤는 (1) 과의존 통계로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2) "자신의 AI 사용 빈도와 목적을 객관적으로 기록 → 평소 인식하지 못했던 사용 패턴 파악 → 무의식적 AI 의존 자각"이라는 메커니즘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두 요구를 모두 충족한다.

오답 분석:

- ①: "기록 자체가 습관이 되어 사용 빈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인과 관계가 비약적이며, '왜 자각하게 되는지'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결과(빈도 감소)'만 진술. 또한 통계가 '기록 습관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는 연결도 부적절.
- ②: 디지털 사용 일지가 과의존 위험군 비율을 직접적으로 줄인다는 주장은 일지의 기능(자기 인식)과 맞지 않는 과대 귀속. 메커니즘 설명도 부재.
- ③: '학업 성적을 높이는 데 기여'는 건의문의 맥락(AI 의존도 자각)과 무관한 내용으로 대상이 교체됨.
- ④: 디지털 사용 일지의 기능을 'AI 답변의 정확도 검증 습관'으로 오분류함. 일지는 사용 '습관' 자각이 목적이지만, 정보 '검증'이 목적이 아님.

9

학생회장의 요구(일지 작성이 의존도 자각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 보완) + 학생 부회장의 요구(과의존 통계 활용)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⑤는 (1) 과의존 통계로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2) "자신의 AI 사용 빈도와 목적을 객관적으로 기록 → 평소 인식하지 못했던 사용 패턴 파악 → 무의식적 AI 의존 자각"이라는 메커니즘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두 요구를 모두 충족한다.

오답 분석:

- ①: "기록 자체가 습관이 되어 사용 빈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인과 관계가 비약적이며, '왜 자각하게 되는지'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결과(빈도 감소)'만 진술. 또한 통계가 '기록 습관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는 연결도 부적절.
- ②: 디지털 사용 일지가 과의존 위험군 비율을 직접적으로 줄인다는 주장은 일지의 기능(자기 인식)과 맞지 않는 과대 귀속. 메커니즘 설명도 부재.
- ③: '학업 성적을 높이는 데 기여'는 건의문의 맥락(AI 의존도 자각)과 무관한 내용으로 대상이 교체됨.
- ④: 디지털 사용 일지의 기능을 'AI 답변의 정확도 검증 습관'으로 오분류함. 일지는 사용 '습관' 자각이 목적이지만, 정보 '검증'이 목적이 아님.

10

④는 (1) "개인의 노력과 제도적 지원이 함께해야 극복할 수 있다"로 글의 핵심 주장(4문단)을 요약하고, (2) "디지털과 일상 사이의 균형을 직접 찾아가는 행해사가 되어 보자"로 청소년 독자에게 실천을 권유하며, (3) "항해사", "유일한 무대", "화면 너머"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오답 분석:

- ①: 핵심 주장 요약은 있으나, 독자(청소년)에 대한 실천 권유가 부재하고, 비유적 표현도 없음. 조건 2·3 미충족.
- ②: '양날의 검', '족쇄'라는 비유적 표현은 있으나, 청소년 독자에 대한 실천 권유가 아닌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만 언급. 핵심 주장(개인+제도)의 일부(제도)만 요약. 조건 1·2 미충족.
- ③: '디지털 바다', '나침반'이라는 비유적 표현과 핵심 주장(미디어 리터러시)이 있으나, 청소년 독자에 대한 실천 권유가 없음. 조건 2 미충족.
- ⑤: 청소년 독자에 대한 실천 권유는 있으나, 비유적 표현이 없고, 핵심 주장의 '제도적 지원' 부분이 빠져 있음. 조건 1·3 미충족.

11

③은 ㄱ의 '사용 시간이 긴 집단의 학업 성취도 저하'를 3문단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으나, ㄴ의 내용을 "시간 제한이 즉각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료의 방향과 정반대이다. ㄴ에서 전문가는 "외부에서 강제로 제한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율 조절 능력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으므로, 시간 제한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자료의 메시지와 반대 방향이다. 또한 3문단은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문단이므로, 해결책(시간 제한)을 추가하는 것은 문단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다.

오답 분석:

- ①: ㄱ에서 사용 '목적'에 따라 학업 성취도 영향이 달라진다는 결과는, 4문단의 "생산적 활용과 소비적 사용을 구분"하라는 주장을 직접 뒷받침함.
- ②: 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 자기 사용 행위를 성찰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견해는, 4문단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라는 내용을 뒷받침함.
- ④: ㄷ의 '디지털 균형 주간'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사용 내역을 기록·분석한 결과 78%가 "사용 습관을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했다는 성과는, 4문단의 "자기 사용 패턴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됨.
- ⑤: ㄴ(외부 강제보다 자기 성찰이 효과적) + ㄷ(자기 기록 프로그램의 성과)을 결합하여, 4문단의 제도적 지원 방향이 '자율 조절 능력 함양'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보강하는 것은 자료의 방향과 문단의 맥락 모두에 부합.